

남도매일



“수상스포츠는 역시 장성호가 최고”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장성호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조정선수권대회가 선수와 참가팀들의 선전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장성군체육회가 주관, 장성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29개 종목에 전국 38개팀 288명의 선수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일본 시니어조정 대표팀 8명을 초청하고 제15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과전 선발전도 동시에 치러져 대회에 임하는 참가 선수들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장성군은 21개 종목에 24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3개 ▲은

메달 4개 ▲동메달 4개로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중부 싱글스컬에서 장성황룡 중 서재호 선수가 3분 54초 48로, 여고부 무타페어에서 문향고 신지혜, 고예령 선수가 8분 8초 39로, 여고부 더블스컬에서 문향고 장나영, 신선하 선수가 7분 39초 53으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 여중부 더블스컬, 여고부 쿼드러플스컬, 남고부 경량급 싱글스컬

에서 은메달을, 남중부 싱글스컬과 더블스컬, 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과 쿼드러플스컬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군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한국·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의 대외 이미지 향상에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선수와 임원,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지역을 방문해 머물면서 지역상가를 이용하고 농·특산물 등을 구입해 지역경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된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장성호의 쾌적한 시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민 등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정경기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해 수상스포츠의 관광상품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이연기 기자

장성군,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성료 ‘감탄사 연발’ 전국 38팀 열띤 레이스… 장성군, 11개 메달 획득

전국유도인들 영광군에서 “으랏차차!”

전국남녀 중·고 유도연맹전 열전 돌입

전으로 나누어 시합을 갖게 되는 데, 경기방법은 토너먼트로 진행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동안 땀 흘려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제 유·청소년 과전 선발대회를 겸하고

있어 선수들의 열기도 매우 뜨겁다.

영광군은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 제68회 전국 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바로 이번 대회를 치르게 됨으

로써 스포츠마케팅의 선두 군으로서 이미지를 더욱 확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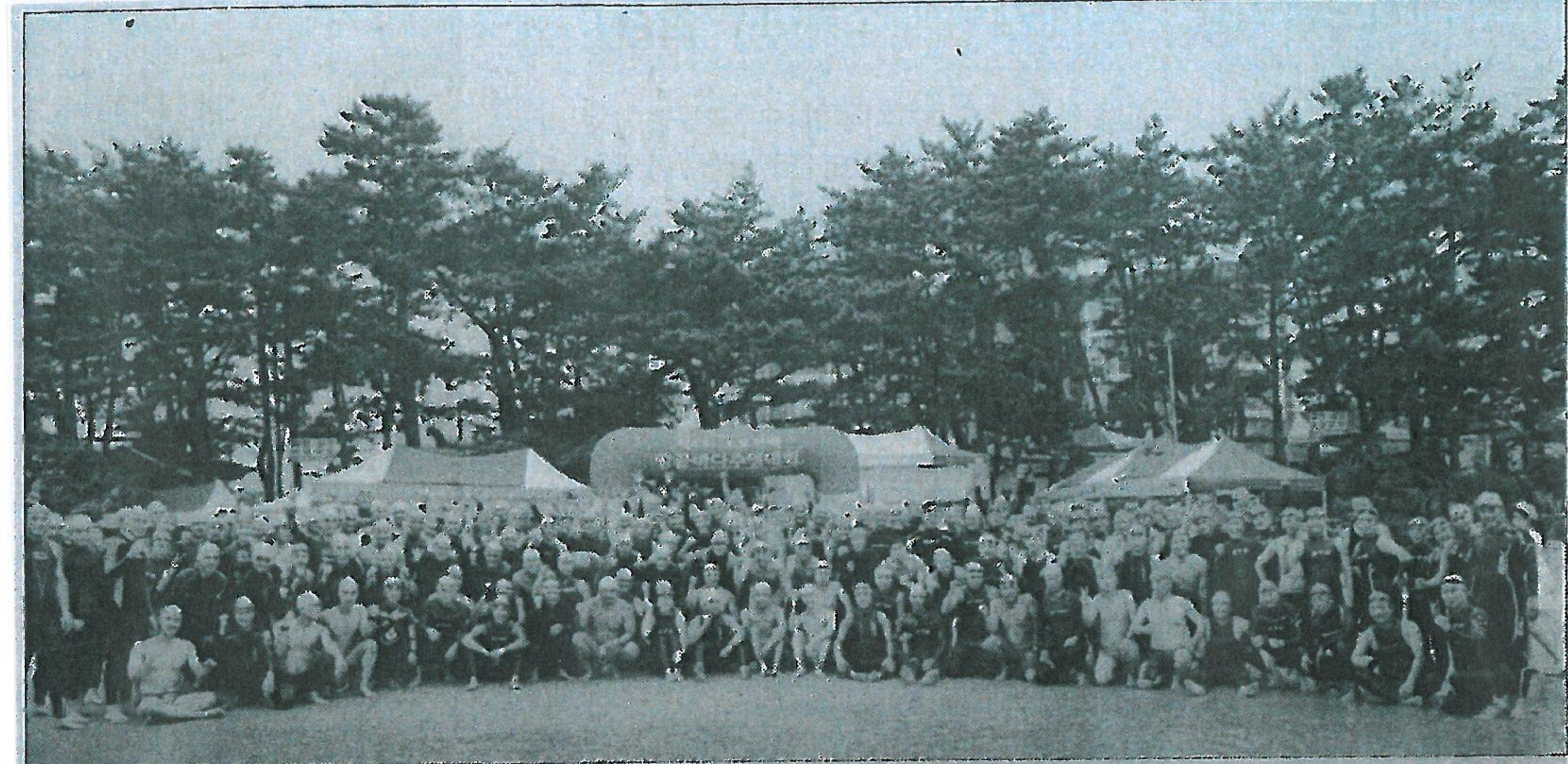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장을 찾은 대회임원과 선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3,000여명에 달 할 것으로 보여 이번 대회를 통하여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도 18억여원에 달 할 것으로 지역경제의 특수가 기대되고 있다.

영광/조일영 기자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영광군에서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2013 하계 전국남여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겸 국제 유·청소년 과전 선발대회를 한국중고등학교 유도연맹 주최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모두 전국 71개교에서 남녀 선수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

남도매일



“아시아의 물개를 찾아라”

제4회 조오련배 망끝바다수영대회 성료

아시아의 물개 故 조오련 전수를 기리는 제4회 조오련배 망끝바다수영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7월27일과 28일 양일간 해남 망끝 송호해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10km, 3.3km, 500m 개인전과 1.2km 단체 릴레이 등 모두 4종목에 국내외 선수 630여 명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다.

대회는 조오련배망끝바다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전남 수영연맹과 전남생체수영연합

회, 해남군수영연맹에서 주관하여 진행됐다.

어느 때 보다도 참가 열기가 뜨거웠던 10km 올림픽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대회MVP를 받은 김진삼(44, 목포시)씨는 “조오련 선수의 정신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 한 것이 수상의 영예로 돌아왔다”며 가족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또한 최고령상은 김관국(65, 해남군)씨이며 최연소상은 박승훈(해남제일중 3)군이 각각

수상했다.

경기 첫날 한 때 짙은 해무로 3.3km 경기가 잠시 중단되며 단축경기로 재출발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는 등 2천여 명의 선수와 가족이 송호해변의 정취와 낭만을 즐기며 대회가 종료됐다.

한편 선수와 가족, 관광객을 위한 모래사장 달리기와 선수 경품추첨, 해남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을 비롯해 전남도지사배 비치발리볼대회와 바다낚시대회가 망끝 송호해변에서 함께 개최되며 볼거리가 풍성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남/전병준 기자

남도매일

강진군, 대통령기 전국 럭비 대회 성료

전국 중·고·대 일반부 23개팀 1,000여명 참가

제24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가 전남 강진군 럭비 전용구장(하멜구장)에서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열렸다.

사단법인 대한럭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강진군과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및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대비,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개최됐다.

전국각지에서 대학부, 일반부 7개 팀과 중등부, 고등부 16개팀 등 모두 23개팀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1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돼 스포츠캐카 강진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된 일반부 결승전은 지난대회 우승팀인 포스코건설을 꺾고 올라온 삼성중공업과 신생팀 SFK홀딩스를 제치고 올라온 상무가 격돌, 24대19로 삼성중공업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중등부는 2013년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남 서중학교가 2년 연속 우승했으며, 고등부에서는 양정고

등학교, 대학부에서는 대회 4연패에 도전한 연세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강성운 스포츠산업단장은 “2008년 강진군이 럭비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로 럭비 전용구장을 짓는 등 럭비협회와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해 왔다.”면서, “럭비경기를 ‘All for one, One for all’(모두를 위해 하나를 희생하고, 하나를 위해 모두가 희생한다)’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호남매일

장성서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성료'

전국 38팀 29개 종목서 열띤 레이스
장성군, 금메달 3개 등 총 11개 획득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장성호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조정 선수권 대회가 선수와 참가 팀들의 선전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조정 협회가 주최하고 장성군체육회가 주관, 장성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29개 종목에 전국 38개팀 288명의 선수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일본 시니어조정 대표팀 8명을 초청하고 제15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선발전도 동시에 치러져 대회에 임하는 참가 선수들의 열기가 어느 때보

다 뜨거웠다.

장성군은 21개 종목에 24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로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중부 싱글스컬에서 장성황룡 중 서재호 선수가 3분 54초 48로, 여고부 무타페어에서 문향고 신지혜, 고예령 선수가 8분 8초 39로, 여고부 더블스컬에서 문향고 장나영, 신선하 선수가 7분 39초 53으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 여중부 더블스컬, 여고부 쿼드러



플스컬, 남고부 경량급 싱글스컬에서 은메달을, 남중부 싱글스컬과 더블스컬, 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과 쿼드러플스컬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군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한국 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의 대외 이미지 향상에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선수와 임원,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지역을 방문해 머물면서 지역상가를 이용하고 농·특산품 등을 구입해 지역경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사

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민 등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정경기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해 수상스포츠의 관광상품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정병렬 기자

호남매일

조오련배 땅끝 바다수영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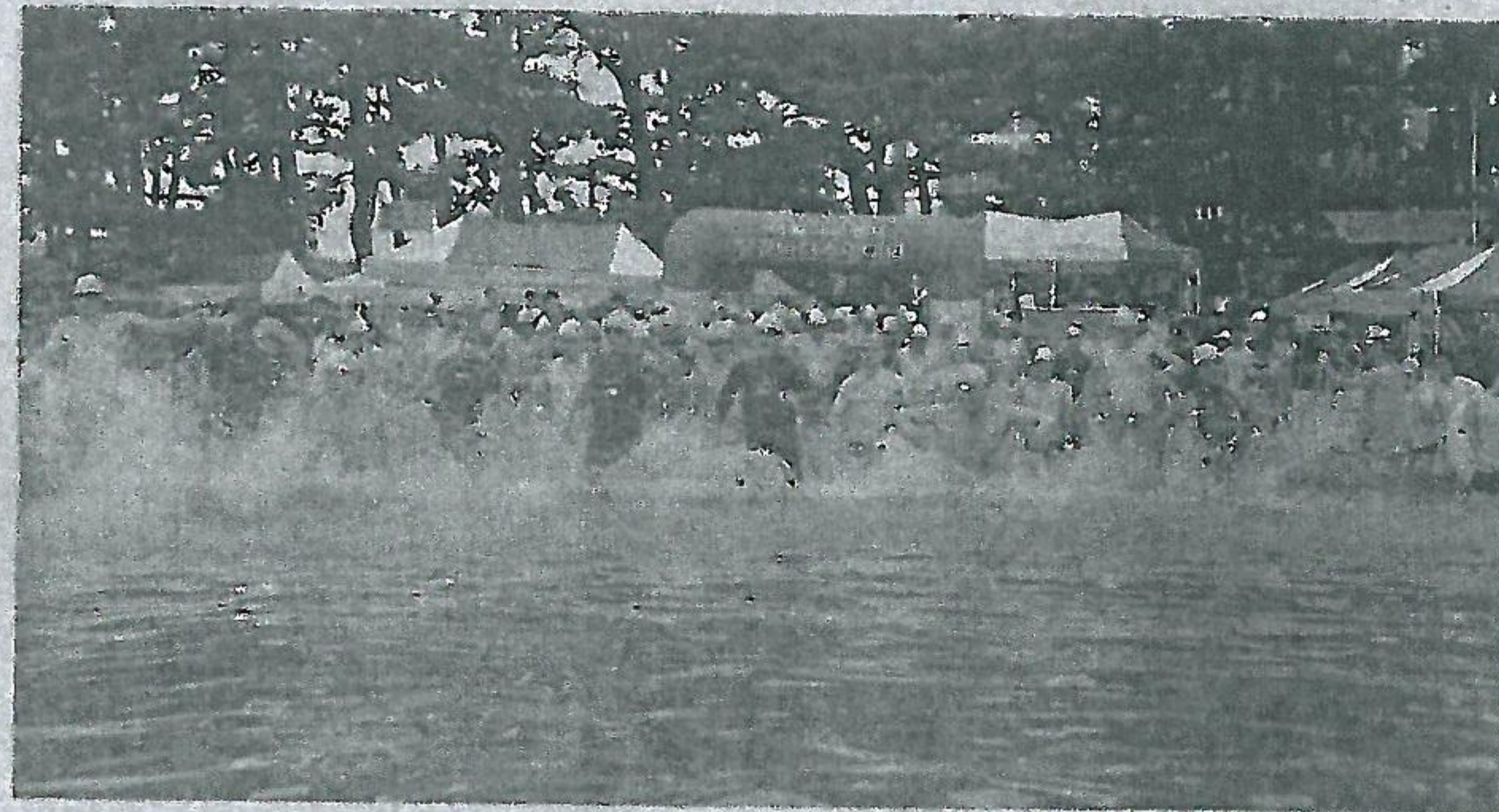
송호해변서 4종목 국내외 630여명 참가

아시아의 물개 故 조오련 선수를 기리는 제4회 조오련배 땅끝 바다수영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해남 땅끝 송호해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10km, 3.3km, 500m 개인전과 1.2km 단체 릴레이 등 모두 4종목에 국내외 선수 630여 명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다.

대회는 조오련배땅끝바다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생체수영연맹, 해남군수영연맹에서 주관하여 진행됐다.

어느 때 보다도 참가 열기가 뜨거웠던 10km 올림픽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대회 MVP를 받은 김진삼(44, 목포시)씨는 "조오련 선수의 정신을 더 울리며 최선을 다한 것이 수상의 영예로 돌아왔다"며, 가족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또한 최고령상은 김판국(65, 해남군)씨이며 최연소상은 박승훈(해남제일중 3)군이 각각 수상했다.

경기 첫날 한 때 짙은 해무로 3.3km 경기가 잠시 중단되며 단축경기로 재출발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는 등 2천여 명의 선수와 가족이 송호해변의 정취와 낭만

을 즐기며 대회가 종료됐다.

한편 선수와 가족, 관광객을 위한 모래사장 탈리기와 선수 경품추첨, 해남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을 비롯해 전남도지사배 비치발리볼대회와 바다낚시대회가 땅끝 송호해변에서 함께 개최되며 불거리가 풍성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남=민광석 기자

무등일보



순천전자고는 지난 24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여고부 단체전 더블과 레구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전자고 여고부 단체전 2관왕

제24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황수현 최우수상

순천전자고가 세팍타크로대회 여고부 정상에 오르며 올 전국체전 전망을 밝게 했다.

순천전자고는 지난 24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막을 내린 제24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여고부 단체전 더블과 레구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5월 열린 제14회 전국남여세팍타크로종별대회 우승 이후 올해만 2관왕의 기염을 토했다.

이윤덕 감독과 김민석 코치가 이끄는 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팀 황수현·박성경(이상 3년) 조는 더블 경기에서 충북 보은 자영고를 한수위의 기량으로 3-0으로 꺾었고, 박성경·강다현(이상 3년)·위지선(2년) 배재은(1년)조는 레구 경기에서 같은 학교와 맞붙어 3-1로 이겼다.

아울러 황수현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정욱기자